

동강대, 스마트 통합돌봄 허브 시동...‘퀄리티 복지’ 제공

유아교육·사회복지학과, RISE사업 연계 프로그램 운영

동강대학교가 광주 특화 산업과 연계한 RISE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을 통해 스마트 통합돌봄 허브대학으로 나선다.

동강대 RISE사업단은 최근 교내 인문사회관 휴먼세미나실에서 ‘동강대학교 RISE 스마트 통합돌봄 허브대학 운영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RISE사업단은 이날 자문회의에 앞서 내년 8월20일까지 ‘동강대 RISE사업 광주 통합돌봄 허브대학 운영 자문위원’으로 활동할 12명을 위촉했다.

위원은 △김용석 (사회복지법인 무지개어린이집 대표위원장) △김정주 (동신대산학협력단 노인맞춤돌봄서비스센터 전문강사) △서영균 (동신대산학협력단노인맞춤돌봄서비스센터 팀장) △신웅철 (큰곰지역아동센터 시설장) △신진호

(㈜제이와이플러스 대표) △심봉성 (두암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안현식 (사랑나눔푸드뱅크 대표) △이보환 (착한도시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이숙자 ((사)광주다아코니아장 센터장) △이영길 (전남노인요양원 후 대표위원장) △이재봉 (다함께돌봄센터(우산) 센터장) △이종성 (빛고을재가센터 사무국장) 등이다.

회의는 동강대 위원회 RISE 센터장과 유아교육학과 유계환 교수, 보육복지학과 김숙일·김미성 교수 등이 참여해 자문위원들과 통합돌봄 운영에 대한 방향성 제시와 프로그램을 논의했다.

특히 따뜻한 돌봄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돌봄종사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도 강조했다.

한편 동강대는 교육부와 광주광역시가 공동 추진한 ‘2025년 RISE 사업’에서 △인재 SKILL



동강대 RISE사업단은 최근 교내 인문사회관 휴먼세미나실에서 ‘동강대학교 RISE 스마트 통합돌봄 허브대학 운영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UP △기업 VALUE UP △지역사회 GROW UP △대학 INNO UP 등 11개 단위과제를 신청, 모든 과제가 선정돼 기획력과 실행 역량을 대외적으로 입증했다.

스마트 통합돌봄 허브대학은 ‘지역사회 GROW UP’ 과제로 사회문제의 적극적인 해결을 위해 광주대, 송원대와 컨소시엄으로 진행된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서구는 11일 화정청소년문화의원에서 행복학교 2기 참여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강연과 음악이 어우러진 ‘렉처 콘서트(Lecture Concert)’를 개최했다.

광주 서구 자녀 행복 꿈꾸는 부모들 ‘한 자리’

렉처 콘서트 개최...음악·강연 어우러진 소통의 장

광주 서구가 자녀들의 ‘진짜 행복’을 고민하는 학부모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서구는 11일 화정청소년문화의원에서 행복학교 2기 참여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강연과 음악이 어우러진 ‘렉처 콘서트(Lecture Concert)’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렉처 콘서트는 1부 ‘예술 브런치’와 2부 ‘특별 강연’ 순으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기타와 건반, 더블베이스가 어우러진 공연팀과 함께 노래 부르기, 참석자들의 별칭 소개로 친밀감과 공감대를 높이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2부는 김이강 서구청장이 ‘행복한 도시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주제로 토크 콘서트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진짜 성공

하는 부모가 될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을까 등 같은 고민과 생각을 가진 분들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다양한 소통과 교류로 경정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참석자들보다 먼저 아들, 딸을 키웠던 선배로서 아이들에게 진짜 필요한 교육이 무엇인지 경험담을 나누며 학부모들과 함께 ‘행복’의 정의를 만들어가겠다”며 “함께서구 행복학교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교육 모델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구는 올해 상·하반기로 나눠 ‘함께서구 행복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전남도는 지난 10일 농업 나누축산물공판장에서 ‘으뜸한우 경진대회 고급육 품평회’를 열고 최고급 한우 선발에 나섰다. 이번 대회에서 광양 서병근 농가가 대상을 차지하며 전남 한우의 위상을 높였다.

광양 서병근 농가, 전남 으뜸한우 고급육품평회 ‘대상’

‘지리산순한한우’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총 2785만원 낙찰

전남 한우의 품격을 가늠하는 으뜸한우 경진대회 고급육 품평회에서 광양 서병근 농가가 대상을 차지하며 전남 한우의 위상을 높였다.

전남도는 지난 10일 농업 나누축산물공판장에서 ‘으뜸한우 경진대회 고급육 품평회’를 열고 최고급 한우 선발에 나섰다. 이번 대회는 최고급 한우 생산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를 목표로 마련됐다.

올해 품평회에는 17개 시군에서 32개월령 이하 혈통·고등 등육우 가운데 자질이 우수한 거세우 28마리가 출품됐다.

심사 결과,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받은 서병근 농가의 ‘지리산순한한우’ 출품축이 대상을 받았다. 이 소는 kg당 5만1000원, 총 2785만원에 거래

되며 전국 평균 경락가(kg당 2만2000원)의 2.4배를 기록했다.

최우수상은 곡성 최하나 농가가 2128만원, 우수상은 영암 이재성 농가가 1560만원에 각각 낙찰되며 영예를 안았다. 입상자는 오는 11월 6일 순천광양축협 가축시장에서 열리는 제41회 전남도 으뜸한우 경진대회에서 전남도지사 표창과 함께 시상금을 받게 된다.

김성진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체계적인 개량사업을 지속 추진해 전남 한우가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 브랜드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농가 소득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조선대, 몽골 다르항에 ‘아시아 거점센터’ 설립

몽골 교육관광유학협회와 업무협약...현판식 개최

조선대학교가 몽골 다르항에 ‘아시아(몽골) 거점센터’를 설립하며 K-교육 확산과 글로벌 교류의 새 전기를 마련했다.

조선대는 10일 몽골 다르항에서 몽골 교육관광유학협회와 ‘아시아(몽골) 거점센터’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현판식을 열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조선대 김춘성 총장을 비롯한 대외협력처 대표단, 몽골 다르항 교육감과 어유니 이레티 고등학교 대표단이 함께 참석해 양국 교육 협



몽골 교육관광유학협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현판식을 열었다고 11일 밝혔다.

력의 의미를 더했다. 대학은 거점센터를 통해 프르리스쿨 학점 인정 △한국어·문화교육 확대 △우수 인재 유치·양성

△광주 기업 연계 취업·정주 지원 등을 추진하며, 다르항을 기반으로 몽골 전역으로 교류 활동을 확장할 계획이다.

김춘성 총장은 “조선대는 어유니 이레티 고등학교 내 한국어반을 개설해 한국에 교육과 문화교류 확대, 우수 인재 양성에 힘써왔다”며 “이번 거점센터 설립을 계기로 몽골 전역으로 교류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학생과 교사들이 함께하는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PEOPLE

2025년 9월 12일 금요일



장성 삼계면 쇼핑타운 목욕탕 재개 군-국군복지단, 협약 체결

영업 중단된 장성군 삼계면의 유일한 목욕탕이 10월 다시 문을 연다.

장성군은 국군복지단과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삼계면 주민의 생활 편의를 위해 삼무대 쇼핑타운 목욕탕 운영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식에는 김한중 장성군수, 장준화 국군복지단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삼계면 쇼핑타운 목욕탕은 10월부터 운영을 재개해 2030년까지 5년간 문을 연다.

쇼핑타운 목욕탕은 삼계면 일원에서 유일하게 운영되는 공중목욕시설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차츰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운영을 맡은 국군복지단이 지난 5월 영업 중단을 결정했다.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자, 군은 국군복지단 측과 논의 끝에 사찰리 신축 목욕시설을 완공하는 2030년까지 5년간 쇼핑타운 목욕탕 운영을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김한중 군수는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뜻을 모아준 국군복지단에 감사 인사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지역민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장성=이항범 기자 lhb6699@



광주 북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

유기 동물 입양체계 현황 점검

광주 북구의회는 최근 경제복지위원회가 광주시 동물보호센터를 찾아 신축 시설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는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펼쳤다고 11일 밝혔다.

광주시 동물보호센터는 국비를 포함해 45억 2500만원을 투입해 조성된 시설로, 올해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센터는 유기동물 보호와 입양을 위한 전문 공간과 함께 위생·방역 설비를 갖추고 있다. 구조·보호에서부터 건강검진과 예방접종, 입양 상담, 교육 프로그램까지 유기동물 관리 전 과정을 담당하고 있다.

위원회는 현장에서 유기동물 입·퇴소 절차, 건강검진·예방접종·중성화 등 건강관리 실태, 소음·악취 저감 설비 등 환경을 살펴보고 입양 절차와 자원봉사·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현황도 점검했다.

김귀석 북구의회 경제복지위원장은 “유기동물 발생 예방과 입양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보호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협력 방안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게시판

알림 ▲마약류 오남용 및 중독 상담=마약류 오남용 및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과 가족을 대상 무료 상담 진행.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광주지부 함께한결음센터. 문의 062-374-2818. ▲아동일시보호 상담=미혼부모아동·결혼가정아동·경제적 사정·아동 학대 등 양육환경에 어려움 있는 3세 미만의 아동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소 상담. 광주영아일시보호소. 문의 062-222-1095·1096. ▲정보기술분야 직업훈련생=15세 이상 장애인 대상.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전산 사무행정. 교육기간 1년. 교육비 무료. 훈련수당 지급. 전남직업능력개발원 문의 061-320-7024.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

수·금) 1일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여,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상보감 등 진행. 062-223-1357. ▲신창동 보은사 묵련합창단 단원=성악 또는 찬불가 배우기에 관심있는 일반인.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정기연습, 신창동 대광로제비앙파트 후문 80m. 문의 010-4622-7838. ▲광주 북구 여성인력개발센터 글쓰기교실=글쓰기 기초를 통해 심리치료를 하는 동시에 자신을 만나는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문의 062-266-8500. ▲블로그 창업희망자 속성교육생 모집=스마트폰 활용가능자 모집. 5~6명 개강. 광주대성초등학교 건너편. 광주블로그창업동호회. 문의 062-511-0030. ▲시니어플래너지도사(자격반)=시·군·구 자부모집. 한국치매예방교육원 광주전남지사. 문의 010-5522-9700.

운세 (음력 7월 21일)

48년생 아랫사람과 인연이 있는 날
60년생 노력을 해도 얻어지는 보람이 없다
72년생 축복적 결정은 실패한다
84년생 차량으로 이동은 삼가하라
96년생 친구 일은 매사에 조심
51년생 물건을 분실할 우려가 있다
63년생 직장에서 중신을 잃지 말라
75년생 마음에 안정이 없다
87년생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99년생 진실은 용기가 필요하다
54년생 뜻밖의 제안을 받게된다
66년생 사랑과 우정 사이에서 고민
78년생 먼저 정한 바를 밀고 나가라
90년생 늘 배운은 자제로 살라
57년생 곡식이 알찬 열매를 보게 된다
69년생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가능하다
81년생 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93년생 차량 데이트는 피하라

49년생 도움을 빌리면 모든 일이 풀린다
61년생 아랫사람을 높이면 이름고 좋다
73년생 문서에 사람이 사망발령에 열려 있다
85년생 도처에 재물이 생긴다
97년생 데이트 흰색차에 동승하지 말라
52년생 운이 따르지 않으니 실망하지는 말라
64년생 부주의로 상사에게 해가 있다
76년생 부모님 말씀에 귀 기울여 보라
88년생 원하는 직장에 합격할 수 있다
55년생 부동산 거래는 지혜가 필요할 때
67년생 친구한테 욕심부리지 말라
79년생 배울 수 있으면 열공 하라
91년생 능력있는 사람을 만나야 해결된다
58년생 노력없는 요행수를 바래서는 안된다
70년생 자녀문제 매사에 조심하라
82년생 상사와 갈등이 생기겠다
94년생 후배 일에 끈질기게 매달리라

강은주 교수의 사주·풍수·직명
50년생 뜻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62년생 무리한 추진보다는 소규모 진행하라
74년생 잊혀지지 않는 일에서 해방
86년생 친구의 마음이 하나 같다
98년생 선배 말에 귀 기울여 보라
53년생 사업확장에 금전 투자는 미루라
65년생 제3자 이야기로 싸움수 있다
77년생 부동산 거래는 이른 시기
89년생 원하는 것 중 적은 것은 이뤄진다
56년생 과감한 자기변화가 필요한 때
68년생 재물 먹지로 이뤄지지 않는다
80년생 여자 만나 윤택이 성공
92년생 분주하기만 하고 소득은 없다
59년생 투기성 있는 사업에 적합하지 않는 날
71년생 통하지 않아 문제 생기겠다
83년생 민감하게 반응하고 즉시 대처하라
95년생 자책 취득 위해 노력을 아끼지 말라